



쉐보레는 타호 출시를 통해 국내에서는 최초로 소형에서 초대형을 아우르는 SUV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 타호, 트레일블레이저, 트렉스, 이쿼녹스, 트레버스(왼쪽부터). 사진제공 | 한국지엠

쉐보레 '타호' 4월 국내 상륙 SUV 크기별 풀-라인업 완성

美 최다 판매 초대형 SUV...브랜드 강화 기대

쉐보레가 미국에서 1994년 출시 이래 가장 많이 팔린 풀사이즈(초대형) SUV인 '타호(TAHOE)'를 4월부터 고객에게 인도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쉐보레는 타호 출시를 통해 국산과 수입 브랜드를 통틀어 국내에서는 최초로 소형에서 초대형을 아우르는 SUV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 이를 통해 차박, 캠핑 등 아웃도어 활동부터 요트와 카약, 카라반 등 새로운 레저활동까지 국내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카허 카점 한국지엠주식회사 사장은 "플래그십 SUV 타호는 쉐보레의 SUV 라인업을 한층 더 보강하는 한편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과 경험을 더욱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쉐보레는 국내 시장에서 새로운 세그먼트의 제품을 과감하게 선보이며 SUV 시장의 개척자 역할을 수행해 왔다.

쉐보레 트렉스는 국내 소형 SUV 시장을 연 상징적인 모델이다. 한국이 개발을 주도한 GM의 첫 글로벌 소형 SUV인 트렉스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국내 완성차 수출 1위를 달성하는 등 국내외에서 높은 인기를 누려왔다.

트레일블레이저 역시 한국에서 개발을 주도했으며 준중형급 SUV의 새로운 기준을 개척한 모델이다. 지난해 국내 완성차 수출 2위를 달성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이어가고 있다.

중형 SUV 이쿼녹스도 올해 상반기 내 부분변경 모델로 국내 시장에 다시 출시된다. 이쿼녹스는 2020년 미국 내 중형 SUV 판매량에서 전체 3위, 2021년에는 5위를 차지한 바 있는 글로벌 쉐보레의 간판 중형 SUV다.

쉐보레 트레버스는 동급 최대 차체 사이즈와 광활한 실내공간, 강력한 주행능력을 바탕으로 수입 대형 SUV 시장 내 존재감을 높여가고 있다. 트레버스는 올해 2월, 내·외관 디자인과 편의 사양을 더욱 강화한 부분변경 모델로 국내에 새롭게 출시됐다.

쉐보레는 초대형 SUV 타호의 가세로 SUV 풀-라인업을 구축하는 한편, 한국지엠의 투-트랙(Two-Track) 브랜드 전략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생산 제품에 더해 수입 제품으로까지 확대된 제품 라인업 구축과 프리미엄화를 통해 전반적인 쉐보레의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2분기 고객 인도를 앞둔 볼트EV와 볼트EUV를 포함해 2025년까지 출시되는 다수의 전기차 출시 계획을 통해 내수 시장에서 브랜드 입지를 높일 예정이다. 원성열 기자

'MINI 일렉트릭' 국내 전기차 시장에 다양성을 더하다

MINI 특유의 민첩한 주행...전기차로 재해석



▲ 간결한 디자인으로 편의성을 강조한 MINI 일렉트릭 인테리어. 사진제공 | MINI코리아

▲ MINI 일렉트릭은 프리미엄 소형 세그먼트 유일의 순수전기차이자 MINI 브랜드의 완전 전기차 시대를 여는 첫 번째 모델이다. MINI 특유의 디자인 감성과 헤리티지를 계승한 매력적인 디자인, 전기차 주행 감성이 더해진 특유의 민첩한 주행성능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 | MINI코리아

독특 튀는 디자인, 젊은 세대 어필 최고 184마력·최대토크 27.5kg·m 무게 배분 최적화 해 코너링 우수 보조급 지원 시 3000만 원 중반대

프리미엄 소형차 브랜드 MINI 코리아는 지난 2월 MINI 브랜드 최초의 순수전기 모델이자 도심형 순수전기차인 MINI 일렉트릭을 국내 시장에 선보였다.

MINI 일렉트릭은 MINI 브랜드의 완전 전기차 시대를 여는 첫 번째 모델이라는 상징성을 지니는 것은 물론, 가격과 주행거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국내 전기차 시장에 다양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뜨거운 시장 반응도 확인됐다. 1월 11일부터 사전예약 신청을 받기 시작한 후 약 한 달 반 동안 올해 예상 물량의 90% 가량이 약 700대가 예약 완료되며 브랜드의 가치를 증명했다.

●철저하게 'MINI화'된 전기차

MINI 코리아 자체 고객 조사에 따르면 MINI 일렉트릭은 트렌디한 도시생활

을 즐기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취향의 순수전기 모델로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MINI 일렉트릭의 오감을 사로잡는 개성과 경쾌하면서도 짜릿한 드라이빙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가치를 부여했다. 이처럼 MINI 일렉트릭은 소비자들의 세분화된 취향을 만족시키며 주행거리와 가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국내 시장에 신선한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출시되는 전기차와 차별화되는 MINI 일렉트릭의 매력은 1959년 최초의 클래식 MINI 출시 이후 이어져온 뚜렷한 정체성을 지닌 디자인, 감각적인 개성, 고-카트 필링(Go Kart Feeling)이라 불리는 MINI 특유의 민첩한 주행 성능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여기에 더해 MINI 일렉트릭은 소형 순수전기차에서만 느낄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감성적인 주행성능까지 더해졌다.

수많은 충성 고객을 만들어낸 핵심 가치인 디자인은 순수전기 모델만의 디자인 요소들을 더해 더욱 매력적으로 업그레이드됐다. 앞면 라디에이터 그릴 테두

리에 MINI 고유의 육각 형태 라인을 적용해 간결한 매력을 강조했다. 내부에 블랙 하이글로스 하우징이 장착된 원형 LED 헤드라이트를 통해 강력한 분위기를 뽐낸다. 앞뒤 엠블럼과 사이드 미러 캡에는 MINI 브랜드의 순수전기 모델임을 상징하는 에너지틱 옐로 컬러가 적용되며, 옆면 사이드 스커틀과 유니언 잭 디자인이 가미된 리어라이트를 통해 MINI만의 개성을 한층 부각시켰다.

●MINI 일렉트릭만의 감성적인 주행 성능

MINI 일렉트릭은 내연기관 MINI 3-도어 모델 대비 무게중심이 30mm나 낮고, 차체 무게 배분이 최적화되어 더욱 우수한 코너링 성능을 발휘한다.

순수전기차의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다이내믹 스테빌리티 컨트롤(DSC) 시스템을 적용해 가속 페달을 밟는 즉시 전기 모터 특유의 높은 토크가 안정적으로 손실없이 도모에 전달된다. 회생제동 강도는 운전자의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해 운전의 재미를 더했다.

보닛 아래에는 최고출력 184마력, 최대토크 27.5kg·m를 발휘하는 최신 동식 전기모터가 탑재되며 정지상태에

서 시속 60km까지 3.9초, 시속 100km까지 7.3초에 가속해 가솔린 MINI 쿠퍼 S에 버금가는 성능을 발휘한다. 1회 충전 주행 거리는 복합 159km이며 급속충전 시 80%까지 약 35분 소요된다. 트렁크 적재공간은 기본 211리터에서 뒷좌석 등받이를 접으면 최대 731리터까지 확대된다.

MINI 일렉트릭은 '클래식'과 '일렉트릭'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되며 클래식 트림에는 후방 충돌 경고, 앞좌석 열선 시트, 후방 카메라 등의 안전 및 편의 사양과 함께 애플 카플레이 무선 연결 기능이 기본 제공된다.

상위 트림인 일렉트릭에는 정면 충돌 경고 기능, 보행자 접근 및 차선 이탈 경고 기능 등을 포함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와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헤드업 디스플레이, 주차 보조 어시스턴트 등 고급 편의 사양이 추가로 적용된다.

MINI 일렉트릭의 가격은 클래식 트림이 4560만 원, 일렉트릭 트림이 4990만 원. 국고 및 지방자치체 보조금을 지원 받으면 지역에 따라 3000만 원 중반대에서 4000만 원 초반대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현대차-쏘카, 커넥티드 카 협력 MOU

현대자동차가 자체 개발한 커넥티드 카 운영체제(ccOS)와 쏘카 애플리케이션을 연동하기 위해 쏘카와 협력에 나선다. 현대차는 25일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커넥티드 카 운영체제 연계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사진)했다고 밝혔다. ccOS는 현대차그룹이 커넥티드 카에서 사용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가공 및 처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한 독자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다. 현



대차는 커넥티드 카의 바탕이 되는 ccOS에 쏘카 애플리케이션을 연동해 쏘카를 이용하는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개인에게 최적화된 운전 환경(시트 자세, 공조, 사이드 미러 위치, 인포테인먼트 설정)을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르노자동차, 인카페이먼트 가맹 확대

르노코리아자동차(대표이사 스테판 드블레즈)가 차량 내 간헐결제 시스템인 인카페이먼트(사진) 가맹점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내 추천 맛집을 인카페이먼트로 즐기자'라는 주제로 아래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약 500여 건의 고객 요청 중 심사를 통해 최종 43곳의 신규 매장을 인카페이먼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 완료했다. 한편 르노코리아자동차는 인기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



들과의 협의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4월 중 롯데리아 일부 매장에서 인카페이먼트 이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르노코리아자동차 김태준 영업마케팅본부장은 "올해 지속적으로 고객 소통을 통해 고객 니즈가 높은 매장을 대상으로 우선으로 인카페이먼트 가맹점을 확장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편집 | 김건 기자 bong82@donga.com

뇌가 색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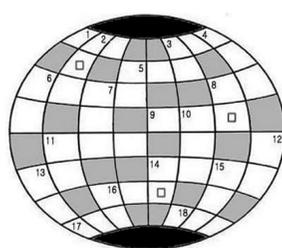
■ 스토쿠문제

3				8				5
		8	5		7	4		
	4			9				8
9	1			5				2
		5	7		9	8		
	7			3			1	9
	5			7				6
		2	9		3	7		
7			6					4

■ 스토쿠정답

8	2	9	5	8	1	6	7	4
1	5	7	1	2	6	9	8	3
8	9	6	2	7	1	5	3	4
6	1	5	9	8	2	7	4	3
9	7	8	6	1	2	5	3	4
2	2	7	9	8	1	6	5	3
2	8	9	1	6	8	2	7	5
5	2	1	8	2	7	6	9	3
4	6	9	2	5	8	1	7	3
8	7	5	1	2	6	9	8	3
1	2	7	9	8	1	6	5	3
5	9	2	8	1	7	5	6	4
7	5	2	6	2	1	9	8	3
6	8	1	9	2	5	8	7	4
9	2	8	7	6	1	2	5	9
2	8	7	5	9	8	6	1	3
5	1	6	2	7	3	4	9	8

■ 낱말문제



■ 가로 열쇠

01. 나무를 가로로 자른 면에 나타나는 바퀴 모양의 테. 03. 자신이 실제로 보거나 겪어 본 일에 대한 이야기. 05. 유유로부터 생산되는 모든 제품. 'ㅇ농ㅇ' 06. 임금의 자손이나 집안. 08. 가느스름하고 기름하게 토막

진 물건의 낱개. 09. 산이나 들에서 저절로 나서 자란 말. 11. 성적이 보통 이하인 학생. 13. 윗쪽 좌우에 있는, 두 팔을 꿰는 부분. 14. 어떤 일을 하는데 때가 아직 이룸. 16. 그럴듯하게 훌륭한 이름을 내 세운 아래. 17. 실랑이를 달게 타서 끊인 물. 'ㅇ로ㅇ' 18. 물건 값을 제하고 거슬러 받는 잔돈.

■ 세로 열쇠

02. 힘들어 음식 같은 것을 보내 줌. 'ㅇ바ㅇ' 03. 어떤 모임에서 제비를 뽑아 선물로 주는 물품. 04. 답이나 벽의 겉으로 드러난 부분. 05. 나뭇잎이 떨어짐. 또는 그 나뭇잎. 06. 사양을 금함. 07. 집 밖에 켜는 등불. 08. 솟·기와·벽돌 등을 굽는 시설. 10. 손톱 따위로 할퀴어 생긴 작은 상처. 11. 식물이 수정하여 씨방이 자라서 된 것.

과실. 12. 목욕물을 담은 통. 13. 남에게 따돌림을 당한 것 같은 느낌. 14. 부모나 조부모를 모시고 있는 처지. 15. 어지간히 많은 수. 16. 범죄에 착수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일.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 칸을 이어붙이면 나라 이름이 됩니다.

